

시론



조석근 목사
안감남부교회 원로

나라의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탄핵당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를 들어 변명하겠지만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현실적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치유 받고, 누구에게 보상받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일지라도 지금의 계엄은 매우 잘못됐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일부 기독교인들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고, 또 한편에서는 탄핵 찬성을 외쳤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친 일은 아니었다 생각된다. 기독교인들은 불의한 일,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 “옳은 것 옳다”하고 “아닌 것 아니라” 하면 된다. 그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상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부를 풀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계획했던 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 하고, 오늘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 가고 있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평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믿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이제는 탄핵의 강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도자(대통령)를 선택할 땐 국민의 몫이다. 곧 나의 몫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또 누군가를 세우실 것이 다. 그리하시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셨다. 그러나 그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다음은 다시 살리셨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 고난, 죽음까지도 잘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당장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하지 말고 당장은 보이지 않아 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바라보자. 거침없이 일어나는 바다의 풍랑만 보지 말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사람의 원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들도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세우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 천지창조 역사의 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다.

社說
식탁 공동체(共同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의 이유와 목적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와 함께하시는 데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지체들의 모임 을 공 동 체 (共 同 體 : a community)라고 하는데 이는 ‘생활이 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단체는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으로 하나가 됩니다. 창조주의 인간 창조는 인격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귄과 영원한 친교, 그리고 인간끼리의 신뢰와 교제. 그리고 만물과의 교통을 통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여러 의미의 목적으로 함께는 공생(共生), 공존(共存), 공영(共榮)하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공동체요, 혈연공동체요, 경제공동체요,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식탁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만찬은 최 사함과 영생의 양식(피와 살)임을 증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생선을 잡으셨습니다(요 21:12-14).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6:29).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생명의 양식과 언약과 영생의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요, 부활의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요 6:51, 56-57).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건강과 능력을, 마음의 양식은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영의 양식은 영원한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식탁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한술밥을 먹는 공동

체를 식구(食口)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인 밥, 양식, 식량, 음식은 구성원들에게 영양과 건강과 생명의 유지, 성장, 능력을 제공하게 합니다. 이러한 식탁공동체가 가정과 민족, 사회와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식탁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들난 하나님의 자녀요, 신 앙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식탁공동체였습니다(행 2:46-47). 식탁공동체는 섬김과 나눔과 친교의 장소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요, 신령한 몸이요, 몸의 지체들의 모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면, 교회는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탁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식탁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마 26:29). 영적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의 식탁(食卓)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서 밥만 먹는 사람은 배를 채우는 것이요, 교제의 밥을 먹는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회복하고 쌓아가는 감사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예배요, 경배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휟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식탁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고(계 2:7), 생명수 샘에서 안식을 누리는 약속을 기억합시다(계 7:17). 그러므로 식탁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계 3:20)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살아갑시다.

칼럼



최병두 목사
서광교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성경에 바리새파는 교리적인 부분이나 실행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혜와 성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였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 6:5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요시하였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의 영적 진리를 무시하였다(마 5:31, 43; 12:2, 19:3; 23:23). 그들은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셨으며, 요한복음 8장 1-11절을 보면 감람산 계시다.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시무개파와 바리새파가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 여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것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시고는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계실 때 다들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나는 요한복음 8장 1-11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된다. 내가 꼭 바리새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는 자신이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교회 많은 성도 부러워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을 감당하고 왔다. 그런데 내가 남을 비판할 때가 있다. 현 정치를 보아도 여·아가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 하신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가 많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분류를 포기하라는 것

이 아니라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번에 정권 발표회장에서 돈사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윤치이면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민하다. 이번에 식사와 교통비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는 부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바리새파 법으로 보면 당연히 문제다. 그럼 물어보고 싶다. 역대 선거기간 중 돈 쓰지 않은 사람 있는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빚을 향해 서면 환하다. 그러나 자신의 뒤에는 짚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다. 누구나 좋은 부분은 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문제가 더 많은 존재가 아닐까? 나는 교단에 소속된 어느 파에도 가입한 적도 없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누구 편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어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서로가 물질을 쓰고 다닌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같은 동역자들이다. 비판과 정죄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김 만 수 사 장 김 종 현 편집인 권 순 달 후원회장 박 근 주 인쇄인 배 성 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 표 전 화 070-7132-0091~5 홈 페이지 www.sknews.org
광 고 신 청 안내 070-7132-0091 독 자 기 고 · 제 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막 1:15)
God's Vision, The Kingdom of God!!

날마다 영혼을 더하시는 교회(행 2:47)
The Lord adds people!

동광제일교회 창립 47주년 임직감사에배

동광제일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 임직감사에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자 임직식을 진행하오니,

교회와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목사 김순갑
- 담임목사 김덕정

일시 2025. 5. 18(주일) 오후 3시

장소 동광제일교회 2층 본당

임직자 명단

장로장립 권순향 이상훈
안수집사 정성진
권 사 우미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15
☎ 032) 521-9191
www.dkji.or g